

개방화시대에서 한국 종돈업계의 진로



강대진 교수
(경상대 축산학과)

UR 협상이 타결되고 WTO 체제 출범을 앞두고 있는 현시점에서 국내의 농업환경은 급격히 변화하고 있다. 우리나라 농업인구와 농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앞으로 급격히 감소될 것으로 생각되어 농민들은 나름대로 대책마련에 고심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추세는 전세계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현실이며, 우리 축산, 특히 양돈분야도 예외는 아니므로 이러한 흐름에 능동적으로 대처해서 해결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의 농업이 국제화시대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문제점을 개선, 해결하고, 가능성이 있는 것은 우선 중점적으로 육성하고, 가능성이 없는 것은 하루빨리 정리하여 경쟁력이 있는 새로운 품목 개발에 힘써야 할 것이다.

그러나 다행히도 양돈분야는

우리나라 농업중 조금만 노력하면 국제화시대에 해볼만한 산업이라고 생각된다. 다시 말해서 우량종돈의 개량확보, 사양기술의 향상으로 생산비 절감, 시설의 자동화, 정부의 지속적인 양돈정책이 마련된다면 가장 유리한 산업으로서 자리를 차지할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본인은 개방화 시대의 우리나라 양돈산업의 진로에 대하여 그 방안을 제시코저 한다.

1. 우리나라 종돈의 능력은 어떠한가?

8·15해방을 전후해서 우리나라에서 사육되고 있었던 돼지(버크셔, 요크셔, 재래종)들은 현재와 비교하면 능력 면에서 형편없었다.

그래서 이러한 돼지들을 개량하고 또 외국에서 사육되고

있는 우량한 돼지(버크셔, 요크셔, 햄프셔, 듀록저지, 체스타 화이트, 폴랜드차이나, 랜드레이스)를 도입하여 시험사육하면서 우리나라에 가장 적합한 품종(버크셔, 요크셔, 듀록저지, 햄프셔, 랜드레이스) 등은 그 사육두수가 증가하였고, 그렇지 못한 품종(폴랜드차이나, 체스타 화이트)은 거의 자취를 감추어 버렸다.

'80년도에 와서는 국민들의 돼지고기 기호성을 높이기 위하여 라지화이트, 라지요크셔 등의 품종을 도입하여 사육한 결과 양돈업계에 활기와 희망을 갖게 하였으나 그 능력면에서는 개량의 여지가 많았던 것은 사실이었다.

그러던중 '80년대 중반부터는 GNP 상승에 힘입어 국민의 식생활 개선을 위하여 육류의 수요가 급격히 증가함으로써 양돈의 붐이 일어나 양돈산업이 활발해지자 사육가나 국가기관에서 외국의 우량한 종돈을 도입하여 품종개량에 눈을 돌리게 되었다.

다시 말해서 사육가들은 어떤 경로를 통해서든지 외국에서 능력이 우수한 돼지가 있으면 가격의 다소를 불문하고 구입하여 사육하고 자가종돈개량에 이용한 결과 오늘날의 우수한 종돈생산이 가능하게 되었

66

극소수의 종돈장에서는 아직도 선전과 판매에만 치중하고, 능력개량에는 관심이 없는 종돈업자가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래서 하루빨리 사육자들은 우량한 종돈을 안심하고 구입하여 사육할 수 있도록 종돈장의 각성이 요망됨과 동시에 개량에 있어서는 좀 더 체계적으로 국가기관이나 특정종돈장에서 육종·개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99

다고 생각된다. 요즈음 우리나라에서 사육중인 종돈의 능력은 대단히 우수해서 외국의 우량돈에 거의 손색이 없을 정도의 개량이 이루어졌다고 생각된다.

그러나 극소수의 종돈장에서는 아직도 선전과 판매에만 치중하고, 능력개량에는 관심이 없는 종돈업자가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래서 하루빨리 사육자들은 우량한 종돈을 안심하고 구입하여 사육할 수 있도록 종돈장의 각성이 요망됨과 동시에 개량에 있어서는 현재와 같이 국가기관이나 개인종돈장에서 제각기 개량하는 것보다

좀 체계적으로 국가기관이나 특정종돈장에서 육종·개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된다.

2. 하이브리드돈은 수입해야 하는가?

최근에 와서 농림수산부에 따르면, 일부 양돈업자가 하이브리드돈을 수입한다는 얘기를 듣고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현재 우리나라 양돈업계에서는 자기 나름대로 자가 하이브리드돈을 생산하여 돼지고기 생산에 이용하고 있고, 그 생산능력에도 효과가 커서 경제적으로 유리한 것은 두말할 것도 없다.

우리나라 종돈의 능력은 전술한 바와 같이, 거의 외국의 우량한 종돈과 비슷하기 때문에 국내산 하이브리드돈도 그 능력면에서 외국산 하이브리드돈에 비하여 하등의 손색이 없다고 생각된다. 그런데 왜 외국산 하이브리드돈이 수입되는지 알 수 없는 일이다. 수입단가가 국내산하고 어느 정도 차이가 있는지, 그 능력 또한 국내에서 시험사육한 성적이 없기 때문에 미지수이나 하이브리드돈 생산에 공용된 부모들의 능력 또한 문제가 아니될 수 없다. 2품종

교배종인지, 3품종교배종인지 또 여기 공용된 품종의 정확한 혈통을 알아야 하이브리드돈 사육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만약 그렇지 않고서는 여러 가지 좋지 못한 결과를 초래하여 양돈산업을 망치게 될 것이다. 또한 하이브리드돈에 대한 올바른 지식과 효과적인 하이브리드돈 생산에 대한 육종학적 지식을 기반으로 하여 생산에 임함으로서 하이브리드돈 사육의 본래의 목적이 달성되리라 생각된다.

다시 말해서 국내산 하이브리드돈이 외국수입 하이브리드돈에 비하여 그 능력면에서 뒤떨어지지 않는 것을 생산함으로써 자연스럽게 국내산으로 충당하게 될 것이다. 우리 양돈업자들도 가능하면 신도불이 정신을 발휘하여 외국산을 배제하고 국내산을 선호하는 마음가지이 요망된다.

뿐만 아니라, 외국에서 종돈이나 하이브리드돈을 수입하는 과정에서 엄격한 검역을 한다고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외국산 수입으로 인한 여러가지 새로운 질병, 즉 오제스키병, 유행성 설사(PED), 호흡기병(PRRS) 및 흉막폐렴병이 발생하여 양돈업자에게 엄청난 손해와 타



격을 주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므로 수입시 엄격한 검역을 실시하고 가능하면 종돈에 한해서 수입하고 하이브리드돈은 제한해서 국내산으로 충당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된다.

3. 양돈의 시설개선이 요구된다.

현재 전국적으로 110여개소의 민간종돈장이 있으나, 몇 개 종돈장을 제외하고는 시설면이 너무나 보잘 것 없을 뿐만 아니라, 시급히 개선이 요구되는 바이다.

국제경쟁에서 이기고 비싼 인건비와 생산비를 절감하기 위해서는 과감한 투자와 시설

의 현대화 없이는 이길 수 없을 것이다.

그러므로 국가현실에서 가장 합리적이고 현대화된 모델을 개발하여 사육가로 하여금 따르도록 유도하고, 필요로 하는 자금 또한 충분히 국가에서 지원토록 대책을 세워야 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양돈으로 인한 환경오염이 심각해져서 양돈폐수가 문제되고 있는데, 이것 또한 국가에서 분뇨처리 시설을 적극 지원하여 환경오염방지에 힘써야 할 것이다.

4. 전문성이 있는 양돈가가 필요하다.

현재 우리나라 양돈업계 인력을 보면 전문적인 지식을 갖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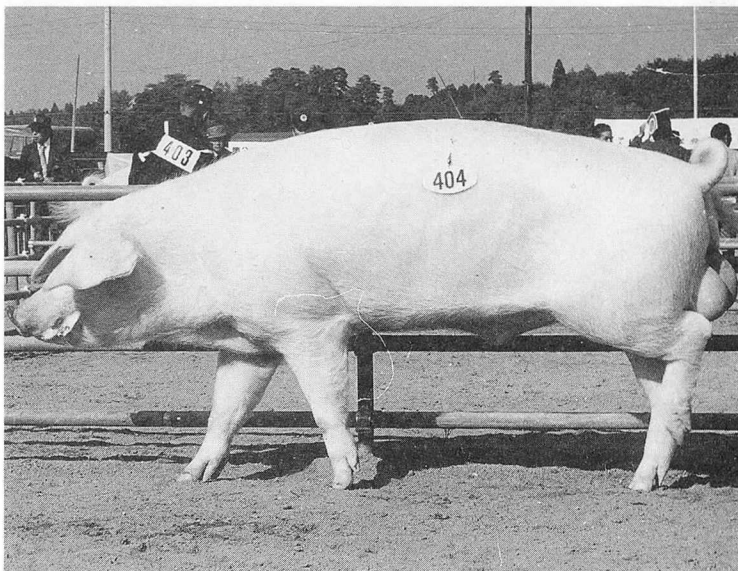
고 종사하는 분도 많지만, 전혀 지식없이 남이 하는대로 맹목적으로 양돈을 하는 경우를 흔히 볼 수 있는데, 이것은 위험하기 짝이 없다.

축산전문인력양성을 위한 축산계열학과가 전국적으로 53개이고, 1년에 모집인원만 해도 2,100명에 달하고 있으나, 과연 얼마나 축산분야에 종사하고 있는가는 정확히는 알 수 없지만, 아마 몇 분지 일에 불과할 것이다. 그러면 나머지는 무엇을 한단 말인가? 대개가 축산하고 거리가 먼 분야에서 사회활동을 하고 있는 현실에서 볼 때 앞으로 양돈업계도 전문지식을 가진 유능한 인재로 하여금 양돈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적극 유도해야만 국제화시대에 살아남을 뿐 아니라, 선진국대열에 서게 될 것이다.

5. 앞으로 한국양돈업계의 진로는?

국제적 개방화시대에 발맞추어 앞으로 우리나라 양돈산업은 경쟁력이 강화되어야 하기 때문에 다음 몇 가지에 중점적으로 대처해 나가야 할 것이다.

① 우량한 종돈확보를 위해서는 국가기관, 양돈산하단체 및 개인 종돈장에서 철저한 능



력검정을 실시하고, 생산성을 높이는 능력이 우수한 종돈개량에 육종학적 기반위에서 체계적으로 실시되어야 할 것이다.

② 시설의 현대화를 하루빨리 이루어야 한다. 즉, 비싼 인건비와 생산비를 절감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시설의 현대화(자동화)에 과감한 투자를 아끼지 않아야 할 것이다.

③ 요즈음의 산업은 전세계적으로 정보화시대로 접어들었기 때문에, 정보가 어두우면 선진국 대열에서 낙오가 된다.

④ 우리나라 전문인력은 얼마든지 있기 때문에 앞으로 양돈업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문인력으로 충당하고, 가능하면 국가기관이나 양돈협회에서 자

주 첨단 새로운 지식습득을 위한 강습회 개최와 선진국 견학에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⑤ 생산품의 고급화를 위한 품종개량 및 하이브리드돈 생산 사양관리 개선에 힘써야 하며, 국내 수요량 증대와 외국 수출에도 가일층 노력해야 할 것이다.

⑥ 마지막으로 높은 확고한 국가관이 절실히 요구된다. 즉, 양돈산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나 생산품을 이용하는 소비자 모두는 대국적인 견지에서 약간의 불만이 있더라도 참고 신돈 불이 정신을 발휘하여 다같이 힘모아 전진해야 할 것이다. **11**

